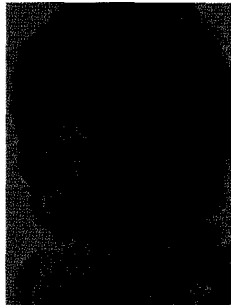




세계의 에이즈

에이즈 예방공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앤더슨상 수상

미국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에이즈 예방과 연구, 환자 간호 활동을 한 공로로 매리언 앤더슨상 3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이 상을 주관하는 필라델피아의 존 스트리트 시장이 지난 2월 11일 밝혔다.



스트리트 시장은 『평생 연기를 통해 각광을 받아온 테일러는 절친한 친구였던 록 허드슨의 죽음을 계기로 에이즈에 대한 투쟁에 과감하게 나섰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2000/02/13)

LA타임스 “의학관련 보도 신중해야”

새 치료법 개발 등 의학관련 보도가 과대포장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난 2월 13일 경고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과 연구결과를 인용, 많은 사람들이 뉴스 매체를 통해 의학 뉴스를 주로 접하기 때문에 새 치료법에 관한 기사가 과장될 경우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2000/02/14)

클린턴 대통령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약속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가난과 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와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 아프리카

정책을 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평한 세계무역시스템 구축 ▲계속적인 채무경감조치 ▲교육 원조 강화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노력 지원 ▲공고 분쟁같은 유행사태 종식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조선일보 2000/02/18)

에이즈 감염시킨 의사에 배상 판결

파리 법원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프랑스 외과 의사에 대해 120만 프랑(18만5천 달러)을 피해 환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지난 2월 22일 알려졌다.

파리의 생 제르맹 앙레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파트릭 코엔씨는 92년과 93년 그에게 수회에 걸쳐 복잡한 수술을 받은 여성환자가 94년 HIV 양성반응을 보인 뒤 법정에서 소환됐는데 수술 당시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코엔씨는 83년 HIV에 감염된 79세 노파의 다리를 봉합하는 도중 감염되었고 94년까지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건강이 나빠 진찰 끝에 이를 발견하고 보건당국에 알렸다. 그는 감염 후 환자 약 6천명에게 수술을 실시했다. (한국일보 2000/02/23)

유엔, 에이즈백신 윤리지침 마련

유엔은 2월 28일 주로 후진국에서 실시될 에이즈 백신 실험을 앞두고 실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일련의 윤리지침을 마련했다.

18개항의 윤리지침은 실험참여자들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절하게 전달되고 이해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험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하

며 실험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에이즈 백신 실험 참가자들이 HIV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으나 참여자의 성생활이나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고 있다.

태국과 우간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미 에이즈 백신이 실험중에 있다. (한국일보 2000/02/29)

인도차이나 3국 에이즈·말라리아와의 전쟁 선언

베트남 보건장관은 지난 2월 29일 라오스, 캄보디아의 보건장관과 국경지역에서의 각종 질병을 공동으로 퇴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차이나 3국은 앞으로 말라리아, 에이즈와 관련된 인력과 정보를 교환하고 병원도 베트남에 공동으로 짓기로 합의했다. (한국일보 2000/03/01)

중국호텔 각 객실에 콘돔 비치

중국 전역에서 매춘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쓰촨(四川)성의 신세기 호텔에서는 에이즈 방지 설명서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객실마다 콘돔을 비치했다고 영문 일간 차이나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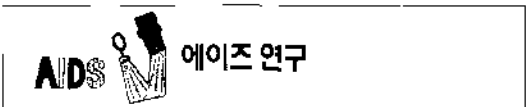
이 호텔은 쓰촨성이 중국에서 5번째로 높은 에이즈 감염률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러나 한가지 콘돔만을 비치해 손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경쟁 호텔의 비난도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경향신문 2000/03/04)

이스라엘, 여가수 에이즈 사인 공개 논란

이스라엘의 한 유명 여가수가 에이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최근 사망한 국민가수 오프라 하자(41)가 에이즈바이러스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사망했다고 지난 달 28일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간 다음날 한 신문도 "오프라, 수치스러운 병으로 사망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상세한 기사를 실는 등 신문들이 이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다.

이스라엘 언론의 에이즈 사인 공개에 대해 찬성파자들은 공인으로서 하자가 당연히 그녀의 병을 공개했어야 했다며,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언론의 사인공개로 그녀가 사후에 사생활을 철저히 침해당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겨레 2000/03/06)



치료법 개발로 에이즈 안전불감증 확산

에이즈바이러스(HIV)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약들의 등장으로 인해 에이즈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 중 일부에 안전불감증이 조성되고 있다고 한 새로운 연구보고서가 지난 1월 31일 밝혔다.

미국 정부 산하의 질병통제방역센터(CDC)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위험 집단 조사대상자들의 31%가 HIV 감염에 대해 경각심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용자들의 40%가 HIV 감염을 별로 우

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가장 경각심이 적은 집단으로 밝혀졌으며 이성애자는 30%, 동성애자는 25%가 각각 HIV가 별로 염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2000/02/01)

에이즈 유전자치료법 동물실험 첫 성공

유전자를 이용한 새로운 에이즈 치료법의 동물실험이 처음으로 성공. 에이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미국의 유전자 및 인간치료연구소(RIGHT) 연구진이 지난 2월 3일 주장했다.

RIGHT 소속 연구원 리치비츠와 프랑코 로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7회 레트로바이러스 및 기회감염균 회의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0/02/04)



구강성교로도 에이즈 감염된다.

구강성교를 통해서도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CNN인터넷 방송은 최근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구강성교로는 HIV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었으나 전체 감염자의 약 8%는 구강성교가 원인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HIV에 감염된 102명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명은 구강성교 외의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센터의 로날드 발디세리 부원장은 "정액에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으므로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감염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많은 경우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입안에 상처가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0/02/09)

HIV 재감염 환자 최초 보고 - 캐나다서

두 번째 HIV 균종으로 재감염을 일으킨 HIV 양성 환자가 처음으로 캐나다의 의사들에 의해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례가 그 동안 의심해왔던 사실, 즉 HIV 양성자가 처음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몇 년 후에도 재감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사실은 HIV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캐나다 의사들은 오타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또 다른 HIV 양성 환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재감염되었다고 보고했다. (의계신문 2000/02/11)

HIV환자에 C형감염 증가

얼마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37회 미국감염증학회(www.idsociety.org)연차회의에서 Lemuel Shattuck병원 내과 바바라 맥거번 교수팀은 종말기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에이즈 환자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Medical Tribune 2000/02/17)

에이즈바이러스 증식 90%까지 억제하는 유전자 요법 개발

에이즈바이러스의 증식을 80~90% 까지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요법이 처음 개발됨으로써 에이즈 정복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연구팀이 개발한 이 에이즈 유전자요법은 아직 동물실험도 거치지 않은 초기단계지만 시험관 실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실험은 주도한 스투어트 스타 박사는 의학전문지 "유전자요법"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HIV를 전염된 세포에서 몸전체로 확산시키는 tat 유전자를 무력화시키는 유전자요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0/02/21)

에이즈바이러스 감염경로 밝혀져

미국과 네덜란드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에이즈바이러스인 HIV-1의 전염 초기경로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단백질 물질을 밝혀냈다고 CNN방송이 지난 3월 6일 보도했다.

전문지 '셀' 3월 3일자에 실린 이 연구결과는 HIV가 어떻게 인체에 침투해 면역세포를 공격하는지를 밝혀주는 데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이 발견을 적용한 의학적 처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다소 시기상조지만 학자들은 이를 통해 에이즈 백신이나 새로운 약물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연구팀은 다음 연구단계로 에이즈 전염과정에 대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가 인체에 적용될 경우, HIV 감염방지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0/03/08)



에이즈 확산

영국에서 에이즈 다시 확산

영국에서 에이즈 감염 사례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성간 감염이 확산되는 등 에이즈 바이러스가 기존 치료제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언론들이 지난 1월 28일 보도했다.

한편 보건교육 기구 관계자는 최근 조사 결과 사람들이 이성간 성행위에서의 에이즈 감염 가능성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번 에이즈 반병 자료는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의 대비책이 중요함을 거듭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0/01/29)

아시아 2015년 세계 최대 에이즈 지역

아시아는 15년 이내에 아프리카를 제치고 세계 최대 에이즈 환자 보유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의 성도인보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내놓은 '전세계 전염병 위기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인용, 아시아가 2015년 이전에 에이즈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에이즈 만연 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난 2월 4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2000/02/05) A

